



## 신종플루 투약 기준 '오락가락'

확진자만→의사 판단따라→가급적 자제→의심환자도 투약  
(8월) (9월 중순) (9월 하순) (10월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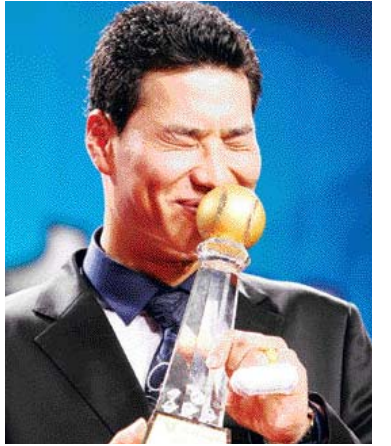
### 복지부 수시로 변경...의료진·환자 충돌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확진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 환자에 대한 투약시기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의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7일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거점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신종플루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투약시기 권고사항이 신종플루 발병자 증감에 따라 수차례 앞치락뒤치락 바뀐 끝에 이날 확진없이도 의심환자에 대해 투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진들은 신종플루 확진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치료제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약 처방을 하라는 권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복지부의 권고사항이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와 유사 환자에 대한 투약을 놓고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간 의견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투약이 늦어져 사망환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환자 및 보호자들의 공포가 커짐에 따라 의사들의 투약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항의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0일께 각급 보건소를 통해 전국 거점병원에 신종플루 확진자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치료

제를 투약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1개월 후인 9월 중순에는 신종플루 발생이 확산세를 보이자 확진자가 아니라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투약해도 좋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9월 하순에는 신종플루 발병이 줄어들자 가급적 치료제 투약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주부터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자 복지부는 27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면 거점병원이 아닌 어느 의료기관에서라도 진료를 받기 바라며, 일선 의료인들은 확진 검사 없이도 의심환자에 대해서 치료제를 처방해줄 것을 권고했다. 광주지역 한 거점병원을 찾은 김모(43)씨는 "아들이 신종플루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안은 일반 감기약을 처방해줬다"면서 "증세가 가뻐더라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발

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치료제 처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사를 만어야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플루 확진 검사가 최근 10배 이상 폭증하면서 검사 기간도 평소 보다 2~3일 가량 지연돼 자칫 적절한 투약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거점병원의 한 의사는 "정부의 신종플루 치료제 투약에 대한 권고 사항이 오락가락하면서 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데다 환자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투약 위주의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플루 확진자 수는 광주지역 경우 지난 20일 930명, 전남 891명이던 것이 26일 현재 각각 1천643명, 1천489명으로 증가, 총 환자 수가 3천명을 넘어섰다. /채희종기자 chae@



### 김상현 MVP 입맛춤

KIA의 '해결사' 김상현이 27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부문별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18면> 홈런(36개)과 타점(127타점) 그리고 장타율(0.632)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김상현은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 결과 총 90표 중 79표를 획득해 MVP의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1·2군 올스타전 및 한국시리즈 MVP를 가져간 KIA는 김상현의 수상으로 2009시즌 'MVP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 돛야구장 건립 확정

포스코건설과 내일 MOU...내년말께 착공

광주시가 2만5천~3만석 규모의 돛형 야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대우, 포스코 건설은 29일 오후 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장 건립 계획을 발표한다. 양해각서에는 포스코 건설이 양도시에 각각 4천억원을 투자해 2만5천~3만석 규모의 돛형 구장을 건립하되, 시공권과 개발권을 가진 뒤 시설을 광주시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돛구장 주변 상업공간과 복합테마타운 조성, 부대시설 건립 운영 방안과 시공자측인 포스코측에 어떤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할 지를 최종 조율 중이다.

야구장 건립 부지로는 현재 2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할 수 없지만, 야구장 건립계획이 발표되면 2곳이 검토됐던 이유를 알릴 것이다"며 "야구장 부지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스코 건설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돼 돛구장 건립 기업으로 채택됐다"며 "대구시도 돛구장 건립에 뜻을 같이해 함께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돛구장 착공 시기는 어떤 성격의 부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야구장 신축부지가 결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절차 등을 거쳐 내년 말쯤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포스코 건설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업체측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야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막관 협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전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며 "돛구장이 건립되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광주·전남 선관위노조

### 통합공무원노조 전국 첫 탈퇴

#### 선거관리 임정중립 위해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통합이 상급단체인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해 사실상 노조를 자진 해체했다. 27일 시·도 선관위 노조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조원 52명 전원이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일선 자단체와 선관위 노조 중 총회를 열어 상급단체 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은 시 선관위 노조가 처음이다. 도 선관위 노조도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원 전원이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노조원들의 민주노총 탈퇴서 제출도 이어져 27일 현재 노조원 154명 중 150명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출산휴가와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 시 선관위 노조 지부장은 "선거관리의 임정중립, 공정관리를 위해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서 노조원 전원이 탈퇴하기로 했다"며 "전국 선관위 노조도 조속히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애타는 父情** 27일 전남대학교 병원을 찾은 한 아버지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진단을 위해 대기하던 중 지쳐 잠든 딸을 안은 채 걱정스런 표정으로 차를 기다리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네이버 뉴스캐스트 'My뉴스 설정'에서 '광주일보'를 클릭하세요

## 세기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park.com

1588-8480 / 062-222-0100